



공정보도

2011-6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10-140) 서울 중구 수하동 67
/전화398-3620~2/ 팩스398-3630/
발행인 공병설·공보위간사 고흥규

www.newsunion.co.kr

편집위, 삼성 간부 자살사건 익명 보도 등 논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보도도 리뷰..향후 선거보도 때 유의키로

제3기 노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는 8월 26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삼성 계열사 간부 자살사건 익명 보도, 한상대 검찰총장의 '종북좌익세력과 전쟁' 발언 박스 제작 지연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편집위원들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부장급 직원이 비행기 화장실 안에서 자살한 사건을 다루면서 소속 회사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종북좌익세력과 전쟁' 발언이 나온 배경과 파장, 야당·시민사회의 반응 등을 짚은 박스 기사가 지연 송고된 것과 관련해선 앞으로 기사 판단을 좀 더 신속하게 내리기로 했다.

편집위원들은 또 최근 큰 관심이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한 보도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있을 총선·대선 등 주요 선거를 보도할 때 좀 더 유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노측에서 공정보도위원회 고흥규 간사, 류지복 부간사, 강훈상 총무, 김성진 기자협회 지회장, 정성호 노조 사무국장이, 사측에서 김성수 편집상무, 이래운 편집국장, 장윤주 국제국장, 김용수 지방국장, 이선근 통합뉴스국장이 참석했다. 채삼석 기사심의실장도 옵서버로 함께했다.

◇ 삼성 계열사 직원 자살

■ 노측 = 삼성 직원이 비행기 화장실 안에서 목을

꿰었다. 어지간한 언론사는 삼성을 썼다. '적응에 힘들어했다'라는 식의 유족 얘기도 나왔다. (회사와 유족 간) 다툼이 있는 것이다. 취재 초기여서 자살 이유가 회사 문제인지, 개인 문제인지 불명료하다. 그저 '40대 회사원이 목 매 죽었다'는 식으로 가치 없는 기사가 된 것은 문제 아닌가.

■ 사측 = 사회부는 초기부터 삼성 계열사 직원임을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무리한 근무 지시나, 열악한 근무 여건, 업무상 스트레스 등 삼성과 관계된 자살인지를 취재했으나 결론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다. 지극히 개인적인 자살로 결론 내렸고 임원도 아닌 부장급이어서 익명으로 처리했다는 보고를 사후에 받았다.

■ 노측 = 취재 초기 단계에서 개인적인 자살이라고 확신을 갖기는 어렵지 않다. 무명 중소기업이나 다른 기업이면 이름을 밝히는 것이 무용할지 모르겠지만 삼성이란 대기업이라면 순수하게 기사의 관점에서 이름을 밝히는 게 맞지 않다.

■ 사측 = 삼성이란 대기업이니 기사가 된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지만 회사 업무와 관계 없는 개인적인 불행인데 회사 이름을 써야 할까. 그건 삼성이 아니라 어느 조직이었다 해도 원칙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누가 (익명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았다.

◇ 검찰총장 '종북좌익세력과 전쟁' 발언

■ 노측 =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종북좌익세력과 전쟁'을 선포했다. 내용상 논란이 예상되고 검찰총장의 취임 일성이란 점에서 배경이나 파장을 별도로 짚어줄 만했다. 스트레이트는 잘 나갔지만 배경이나 논란, 야당·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다룬 박스는 밤 10시가 넘어서 나갔다.

■ 사측 = 취임사로선 주목할 만한 내용이어서 빨리 처리했어야 했는데 좀 늦은 것은 미흡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판단해야겠다.

◇ 무상급식 주민투표

■ 노측 = 투표 관련 보도에서 일부 기술적인 미숙함이나 정치함의 부족 등이 눈에 띈다. 관행적인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답습해 선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잘못 전달하는 일도 있지 않았나 싶다.

■ 사측 = 앞으로 선거 관련 기사가 나갈 때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다.

이달의 참글상

이달의 참글상 장려상에 <서울역 노숙인 퇴거 논란> 등

이번달에는 3편의 기사가 이달의 참글상 장려상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노동조합 공정보도위원회는 8월 22일 회의를 열어 이정현 차지연 조합원(사회부)의 '〈내달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논란 일 듯〉', 기획취재팀의 '〈웬만해선 못 막는 '위험한 그들'의 귀환〉 기사 연작', 한민족센터 다문화부와 재외동포부, 박종국 선양특파원이 공동 기획한 '〈조선족 1% 시대〉' 시리즈 등 모두 3편의 기사를 이달의 참글상 장려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전체 18명 중 13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공보위원들은 노숙인 기사와 조선족 기사의 경우 ▲소외계층 보호라는 참글상의 제정 취지를, '〈웬만해선...〉'의 경우 ▲권력·자본에 대한 견제란 취지를 각각 잘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공보위원들은 특히 이번달의 경우 미수상작을 포함해 모두 참글상의 취지에 맞는 수작들이 출품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심 끝에 3편만 참글상 수상 자격

이 있다고 판단했고 상격은 장려상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장려상을 준 것은 과거에 대상이나 우수상을 받은 기사와 수준이나 파급력 등을 비교해 내린 결정이다.

